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첫걸음,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서!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참여 학생들에게는 ‘팩트체크 전국대회’ 참가 기회 제공
-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교육 현장 방문하여 팩트체크 교육 중요성 강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3.2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2024년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하였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 이하 ‘미디어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3개)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시상하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현장을 참관한 이후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체험에 참여한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디어재단은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이외에도 올해 전 국민의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총 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 대학생, 노인, 교사·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하며 학습자료 등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손건우 (02-2110-1538)

